

흙으로 만든 '널'

〈시체를 넣는 관이나 끝〉

독널무덤 축조방식 조명
토기·항아리 등 260여 유물 전시
장례 풍습 등 당대문화 투영



나주 신촌리 9호 무덤 출토
원형모양 토기.



영암 옥야리 19호 무덤 2호 독널 출토품.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고요한 위엄

인간의 통과의례 가운데 장례는 당대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다. 내세사상은 물론 현세의 바람 등이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장례 문화는 당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고대 영산강 유역은 친란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유서 깊은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고대국가 시기에는 독자적인 토착세력이 정치체제를 갖추고 인접 연맹체와 관계를 유지해왔다.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장례 풍습이다. 독널무덤은 영산강 고대 사람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징이나 키워드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지금까지 독널 외에도 내부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됐다.

독널무덤의 축조방식과 그 안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적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지역 고대 역사와 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이 오는 3월 15일까지 진행 중인 '흙으로 만든 널, 고요한 위엄: 고대 영산강 유역 사람의 마음을 담다'는 고대 사람들의 문화를 대변하는 시간이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토기, 청동거울, 청자 잔, 항아리 등 260여 점을 선보인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나주 반남고분군을 비롯해 영암 옥야리고분, 쌍무덤 등지에서 발굴된 다양한 고대 유물을 볼 수 있다"며 "당대의 유물을 통해 영산강 유역의 지역 토착 세력의 장례 풍습과 문화 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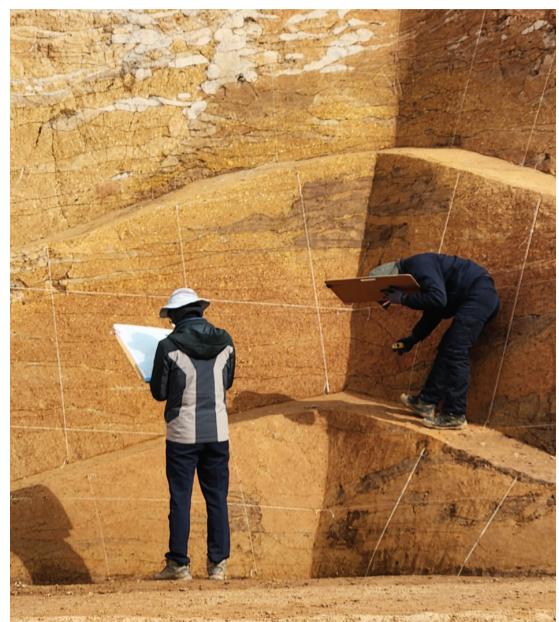
전시의 주 내용은 독널무덤이다. 당대 지역 세력의 사회·문화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축조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독널무덤은 다른 고대 사회 무덤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봉분 안에 다수 독널을 넣은 '다장' (多葬) 무덤 형식을 띠는데 흙으로 봉분을 쌓고 정상 부근에 독널을 묻는 이른바 '선분구 후매장' 방식이 통용됐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독널무덤이 지향하는 정신세계의 단면을 조망한다. '공유된 독널 매장 풍습'을 모티브로 독널을 매개로 진행됐던 장례 양식을 살펴보고 고대 사람들이 망자를 위해 기원했던 내세사상 등을 알아본다.

전시와 관련된 체험도 마련돼 있다. '독널무덤을 만든 영산강 사람'을 비롯해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을 통해 고대 영산강 유역의 지배체계 특징과 장례문화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김 관장은 "고대 사람들의 장례문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계기를 준다"며 "전시를 모티브로 영산강 지역 문화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주 덕산리 3호 무덤 중앙 성토부분 실측 모습.
〈동서문화유산연구원 제공〉



광주시립창극단 미당창극 '열어볼 결심' 의 한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별보다 빛나는 독서 여행' 함께 떠나요

28일까지 광주 문화의 숲도서관…초등 3~6학년 대상

별과 우주는 언제나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하늘 너머에는 어떤 행성이 있고, 밤하늘의 별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독서와 체험을 통해 우주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 문화의 숲도서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오전 9시 30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 교실 '별보다 빛나는 독서 여행'을 운영한다. 선착순 15명. 이번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전국 공공도서관이 함께 진행하는 겨울 독서 프로그램의 하나로,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단순한 독서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와 놀이, 체험을 결합해 읽기의 즐거움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의 중심 도서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우주 100가지'다. 아이들은 이 책을 바탕으로 별자리와 우주 이야기를 따라가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황도 12궁과 신화 속 별자리 이야기를 함께 읽고, 우주를 주제로 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 개념을 익힌다.

체험 활동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나만의 과학 우주 상자'〈사진〉를 만들어 보며 상상력을 더하고, 별과 행성을 소재로 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손으로 직접 표현해본다. 읽기와 만들기, 놀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문화의 숲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마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